

‘S펜 탑재·3200만 화소’... 장점은 유지하고 가격은 다운

갤럭시노트 10 라이트 써보니

카메라 성능 노트10과 큰 차이 없어
노트10보다 큰 화면·배터리 매력
70만원대로 유럽·동남아 등 출시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노트10’의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노트10 라이트’로 유럽과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0’에서 노트10 라이트를 전시하며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였다. 노트10 라이트는 보급형 모델로 노트10의 큰 특징은 유지한 채 가격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CES 전시장에서 본 노트10 라이트는 외형만 보면 노트10과 차이점이 많았다. 노트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인 ‘S펜’을 탑재했다는 것만 같다고 느꼈다.

우선 전면 스크린을 보면 노트10은 화면의 양 옆이 휘어지는 엣지 디스플레이인 반면 노트10 라이트 모델은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화



갤럭시노트10(왼쪽)은 엣지 디스플레이인 반면 갤럭시노트10 라이트는 플랫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두 제품 모두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면 크기는 라이트가 6.7인치로 노트10(6.3인치)보다 크다. 상단의 중앙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부분은 같다.

눈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차이가 있다. 노트10은 눈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노트10 라이트는 시력 보호 기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다. 노트10 라이트에는 노트10에

서 사라졌던 이어폰 단자도 다시 등장했다.

S펜을 탑재하긴 했지만 성능에선 차이가 있다. 노트10에서는 S펜을 움직여 화면을 전환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에어 액션’ 기능이 가능하지만 노트10 라이트에선 불가능하다. S펜의 버튼을 클릭해 단순 사진 촬영은 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 배열에서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트10은 카메라 3개가 일렬로 배치된 반면 노트10 라이트는 사각형 모듈 형태로 위치한다.

애플이 ‘아이폰11’에 처음 적용해 인



갤럭시노트10(왼쪽)과 갤럭시노트10 라이트 제품 모습.

/구세윤 기자

덕션 디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노트10 라이트는 보급형 모델이지만 카메라 성능에선 노트10과 큰 차이가 없다. 노트10라이트는 후면에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와 광각 렌즈, 망원 렌즈를 탑재했다. 전면에는 3200만 화소 카메라를 달았다. 노트10의 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 초광각 렌즈, 1200만 화소 슈퍼스피드 듀얼픽셀 렌즈와 망원 렌즈를 탑재했다. 전면에는 1000만 화소의 듀얼픽셀 카메라가 위치한다.

노트10라이트의 배터리 성능은 4500

mAh로 노트10(3500mAh)보다 우수하다.

삼성전자는 큰 화면과 우수한 카메라·배터리 성능으로 동남아 소비자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삼성전자 관계자는 “라이트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하는 곳이 개발도상국인데, 개도국 소비자는 스마트폰이 유일한 디바이스인 경우가 많아 영화도 보고 메시지도 보내는 등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스크린을 선호한다”며 “한국, 유럽 소비자는 작은 스크린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은 큰 사이즈가 잘 팔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노트10 라이트는 사람들이 느끼기 어려운 디자인이나 스크린 성능은 낮추고, 카메라나 배터리 성능은 뽐낼 수 있게 갖춘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노트10 라이트는 이달부터 70만원대에 유럽, 동남아 등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통업체도 노트10라이트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 계획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밝혔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KT, 中企와 고성능 광중계기 개발

“기존 중계기 대비 속도 두배... 서비스 차별화”

고용량 데이터 동시에 전송

KT는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실내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고성능 광중계기를 개발 완료하고 실내 5G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에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계기는 기지국 자원을 공유해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무선 데이터를 쓰는 사용자가 많으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저하되기도 한다.

KT가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해 도입한 고성능 광중계기는 네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고용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존 중계기



KT 네트워크부 직원들이 경기도 안양시 흥플러스 매장 내에 고성능 광중계기를 설치하고 5G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KT

대비 두 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또 안테나를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가변적 시설이 가능해 내장형으로 설치 시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고 건물 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눈에 띄는 한진의 성장... 영업이익 전년비 2배 ↑

(421억→910억)

매출액 2.5조, 전년 대비 5.5% 증가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택배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지난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뒀다.

한진은 2019년 4·4분기 누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910억원을 기록, 전년의 421억원에 비해 116.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액도 2조 57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5% 늘었다.

내친김에 ‘2023년 택배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설비 확충 및 자동화 투자 지속과 대전 메가 허브(Mega-Hub) 구축 및 부산, 인천, 원주 등 각 지역에 터미널 신축을 통한 처리 물량 확대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호실적은 택배사업의 성장에 따른 자동화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해운·항만 물류사업의 재정부 등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온 물류사업 구조재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승호 기자 bada@

경영정상화 우선...한숨 돌린 기아·쌍용 상경투쟁·공장파쇄로 멍드는 르노삼성

기아 재교섭 통해 부분파업 중단
쌍용 노사 경영환경 극복에 한뜻
르노삼성 노조 게릴라성 파업 실시

새해 초 노사 갈등을 겪었던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노사간 손을 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자구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아차 노조는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서 추가 합의된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 운영 합의 등이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7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본교섭에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지난달 13일 열



르노삼성노조 임금협상 쟁취 결의 집회

/연합뉴스

린 기아차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159명)로 부결됐다.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8~19일과 24일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노사는 새해 들어 18차 본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14일 오후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면서 부분 파업을 중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노조원들의 동의율도 90%를 넘어선 상태다. 쌍용차의 추가 자구안에는 통상상여 200% 삭감, 목표달성(PI) 성과급 250만원 삭감, 상여 OT·제도개선 OT·연구업적 인센티브 삭감, 2020년 발생 연차수당 지급을 변경(통상임금 150%→100%)해 2022년에 분할 지급, 올해 말 일시금 100만원 삭감, 2020년 임단협 동

결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9월에도 복지 중단 등 자구안에 합의했다.

다만 르노삼성 노사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하며 상경투쟁에 나섰고 사측은 부산공장 직장파쇄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노조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 ▲노조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 26개 항목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기본급 인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다.

/양성운 기자 ysw@